

# EU Brief

| EU 동향 |

- 위기를 통해 더 견고해진 EU  
Through Crisis to Strength: Sovereign Debt Crisis will Lead to Stronger European Union
- 2012년 EU 경제 전망  
2012 Economic Forecast: The European Union
-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역내 정책공조  
Policy Coordination Necessary to Overcome the Fiscal Crisis
- 중국의 對EU 투자 확대  
A Rise in China's Investment in the EU
- 유럽기업들의 재정위기 생존전략  
European Companies' Survival Strategy During Crisis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5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http://www.yonser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 EU Focus

- 위기를 통해 더 견고해진 EU ..... 002  
Through Crisis to Strength: Sovereign Debt Crisis will Lead to Stronger European Union



## EU Economy

- 2012년 EU 경제 전망 ..... 005  
2012 Economic Forecast: The European Union



## EU Politics

-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역내 정책공조 ..... 008  
Policy Coordination Necessary to Overcome the Fiscal Crisis



## Trade & Investment

- 중국의 對EU 투자 확대 ..... 013  
A Rise in China's Investment in the EU



## Industry Trends

- 유럽기업들의 재정위기 생존전략 ..... 018  
European Companies' Survival Strategy During Crisis



## EU Law

- EU 법체계와 FTA 등 대외적 협정의 적용 ..... 023  
EU Legal Institutions and the Effectiveness of EU's External Agreement



## Social Issues

- EU의 정체성을 위한 언어교육정책 ..... 028  
Language Education Policies for Strengthening EU's Identity



## Report Review

- 이탈리아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 ..... 032  
Another Economic Problem in Italy: Uneven Regional Development



## EU Centre news

- 제13회 EU Core-Circle 세미나 ..... 034  
The 13<sup>th</sup> EU Core-Circle Seminar
- 제27, 28회 EU 특별강연 ..... 035  
The 27<sup>th</sup> and 28<sup>th</sup> EU Special Lecture
- EU Society 1기 모집 ..... 036  
The 1<sup>st</sup> EU Society Member Recruitment



# 위기를 통해 더 견고해진 EU

## Through Crisis to Strength: Sovereign Debt Crisis will Lead to Stronger European Union

The sovereign debt crisis in some European countries is raising concern not only in the European Union, but also in other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in North East Asia. Some analysts hold the European problems mainly responsible for the volatility in local financial markets and reduced growth prospects for Asia. They call for a “quick fix” of the Euro crisis through Eurobonds to be emitted by the European Central Bank.

This view risks to neglect the main cause for the volatility at Korea’s financial markets. It is not the Euro, but mainly other currencies in search of quick gains through carry trades. For example, large amounts of US Dollars inflated by repeated rounds of “quantitative easing” and low domestic interest rates cause short-term bubbles, and downturns once the bubble bursts. Unfortunately, these huge inflows and outflows of capital act in a pro-cyclical way, amplifying both positive and negative trends. A recent indicator for the latter was the downgrade of the US credit rating by Standard and Poor’s in August, triggering a steep downward move at global financial markets including in Korea.

Certainly, the fiscal debt problems in the Euro zone are serious. The current fiscal strains of some members of the Currency Union pose a considerable political challenge to the European Union as a whole. The Euro Summit’s decisions of 9 December gave a convincing response to the challenge. The members of the Currency Union and a number of additional EU member states agreed on a treaty that will limit the structural budgetary deficit by 0,5 % of the GDP. Economic policies are to be coordinated more

effectively and thoroughly. Earlier decisions taken in October provided a solid framework for the restructuring of Greece’s debt and increased the firepower of the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EFSF).

The European decisions send a signal of confidence to the markets. Key principles, first of all the independence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and the common commitment to fiscal consolidation, have been maintained. The Council has made it clear that fighting debt by issuing new debt, e.g. through the introduction of eurobonds, is the wrong way. The right way is fiscal consolidation. There is no alternative to a sustainable and consistent reduction of debt.

In the light of the recent decisions, there is no reason for concern for Korea. Take as an example Korea’s exports to Europe including Germany, its most important trading partner within the European Union. The trade continues to perform well. The position of the EU as Korea’s strategic economic partner will grow in strength, pushed by the application of the Free Trade Agreement EU-Korea started on July 1st, 2011.

The sovereign debt crisis in Europe entails not only risks, but also huge opportunities for strengthening the European Union. It provides the occasion to address the obvious shortcomings in the construction of the Euro. Since the European Stability Pact with its sovereign debt limits has been repeatedly violated, we will introduce binding regulations obliging the members of the Euro zone to stick to the rules. The goal is a stability union based on a close coordination of fiscal policies. Europe needs a set of binding rules that can effectively

be enforced, in order to achieve a union of fiscal stability. This process will lead to financial consolidation, a more powerful Euro and a stronger political union. It will consolidate Europe’s role as a key economic and political player in the world.

*The article expresses the author’s personal views*

Johannes Regenbrecht, Minister-Deputy Head of Mission, Embassy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o Seoul





# 위기를 통해 더 견고해진 EU

유럽 몇몇 국가의 재정위기는 EU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경제 성장 둔화가 유럽의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따라서 ECB가 유로본드를 발행해 유로화 위기를 시급히 수습해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 금융시장 변동성의 주요인이 무엇인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유로가 아니라 지역 시장에서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다른 통화들, 예를 들어 달러의 거둬들인 양적완화와 저금리가 단기 버블을 만들었고, 경기하강이 그 버블을 터트린 것이 한국 금융시장 변동성의 주요인이다. 문제는 자금의 유출입이 경기흐름에 순응하여 일어나면 순영향과 악영향을 동시에 일으킬 수 있는데, S&P가 8월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악영향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로써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급랭하였다는 것이다.

분명, 유럽에는 심각한 정부 부채 문제가 있다. 또한 몇몇 회원국의 재정문제는 EU 전체에 상당한 정치적 압박이 되고 있다. 지난 12월 9일의 유로 정상회의의 결정은 이러한 위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응이다. 통화동맹(유로화 사용국가) 회원국과 기타 EU 회원국들은 GDP의 0.5% 수준으로 구조적 재정적자를 제한하는 것에 합의했다. 추후에 경제적 정책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조정될 것이다. 앞서 10월 정상회의에서는 그리스의 채무를 재조정하고 EFSF를 증강하는 데 대한 견고한 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정은 시장에 신뢰의 신호를 보낸 것이다. 무엇보다도 ECB의 독립성과 재정통합에 대한 기본 책무 등은 유지되었다. 그리고 유로본드의 도입과 같이 새로운 부채를 발행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올바른 방법은 재정통합이다.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부채 감축을 위해 다른 대안은 없다.

이러한 최근의 결정과 관련해서 한국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EU 국가 중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독일에 대한 한국의 수출 실적역시 양호한 편이다. 한국의 전략적 경제 파트너로서의 EU의 지위 역시 7월 1일 한-EU FTA를 계기로 한층 더 강력해지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한편으로는 위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EU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즉, EU가 공동으로 재정정책을 실행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유로화의 구조적 한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안정화 협약에서 부채 한도를 정해놓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으므로 유로 지역 회원국들이 이러한 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보다 강화된 재정정책 조율을 바탕으로 재정 안정을 모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EU는 재정안정연합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구속력 있는 틀이 필요하다. EU는 이미 이러한 틀을 만드는 과정에 착수했는데, 이로써 재정통합과 더 안정적인 유로화 운영뿐만 아니라 더욱 강한 정치적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 세계에서 EU의 경제적,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역할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드립니다.*

요하네스 레겐브레히트 주한독일연방공화국대사관 공사/공관차석

# 2012년 EU 경제 전망

## 2012 Economic Forecast: The European Union

The economic situation in the eurozone is expected to worsen and its economy is estimated to grow by a mere 0.5% in 2012. The growth rates of private consumption(0%), capital investment(0.8%), and government expenditure(-0.5%) are all going to decline and that of exports will also decline from 7.3% in 2011 to 5.5% in 2012 as the global economy struggles to revive itself. The fiscal crisis is going to have an impact on the real economy through continued eurozone anxiety and governments' austerity measures. The fiscal crisis and the economic slowdown in the eurozone are also going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non-eurozone members in the European Union. Eastern European countries performed well in 2009 after the financial crisis, but they will struggle to continue their strong growth in 2012. In conclusion, EU members' economies, both in the eurozone and those outside, are going to experience a slowdown and grow at a rate below 1% as a whole. Inflationary pressure is expected to ease in the second half of 2012 and private consumption may recover somewhat but a global economic slowdown, eurozone members' austerity measures and a decline in consumer and corporate confidence are all going to act as major negative factors.

### 2011년 2/4분기부터 EU의 성장세가 본격적으로 둔화

2011년 EU의 경제 성장률은 1.7%로 전망되는데, 이는 2010년의 성장률 1.8%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다. 유로지역은 재정위기의 영향이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EU의 성장률을 밀도는 1.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긴축으로 인해 정부지출이 감소했고, 경기둔화 움직임이 기업투자와 개인소비를 모두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지출은 2011년 1/4분기 0.4%(전 분기 대비) 늘었으나, 2/4분기에는 0.2% 감소하였고, 가계 소비는 1/4분기에 0.2% 증가한 후 2/4분기에는 0.2% 감소하는 등 경기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투자와 수출 역시 2/4분기에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9월 중에도 경기체감지수(ESI: Economic Sentiment Indicator)<sup>1</sup>가 2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하회하였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Purchasing Managers' Index)는 8월부터, 서비스업 PMI는 9월부터 기준치인 50을 하회하는 등 3/4분기에도 실물경기 지표(소매매출, 대외주문, 산업생산 등)가 둔화되는 추세다. 더구나 재정위기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는 한편,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대외수출 둔화도 예상되기 때문에 2011년 하반기

기에도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그동안 EU의 성장엔진 역할을 해오던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의 경기가 2/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악화되면서 EU 경제 전반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은 해외수요 감소로 수출이 악화되며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 지난 8월 산업생산이 1.0% 감소했으며, 기업신뢰지수(IFO, Business Climate Index)도 6월 이후 연속 하락하고 있다. 프랑스도 ESI가 7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더구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경기도 당초 예상치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스의 2011년 경제성장률은 당초 -3.8%로 전망되었으나, 현재로서는 -5%를 훨씬 밑돌 것으로 예상되며,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도 내수 부진으로 1% 이하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2012년 유로지역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

2012년에도 유로지역은 경기침체가 심화되며 0.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0%), 기업투자(0.8%), 정부지출(-0.5%) 등의 증가세가 위축되고,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증가율도 2011년 7.3%에서 2012년 5.5%로 하락할 전망이다.<sup>2</sup> 뿐

<sup>1</sup> ESI는 소비자와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향후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설문 조사한 지수로 장기 평균치인 100이 기준이며, 지수가 100 이하면 향후 경기가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sup>2</sup> 유로지역의 수출은 영국 12.7%, 미국 11.7% 등 선진국 수출 비중이 약 60%를 차지한다.





만 아니라 재정위기의 부정적 여파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그리스가 디폴트 위기를 넘겼다고는 하나 채무불이행 우려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이 아니며, 유로체제의 시스템 모순 역시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에도 경기주체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재정위기에 대한 정책대응 과정이 회원국 전체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금융시장 불안이 단기간에 쉽게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재정취약국에 대한 분기별 구제금융이 원활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둘째, 2012년에도 지속되는 고강도 재정긴축이 성장을 제약할 것이다. 2012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재정적자 규모(GDP 대비 %)를 전년 대비 각각 1.0%p, 1.6%p, 1.7%p, 1.5%p 감축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유로지역의 재정긴축이 GDP의 1%p 규모로 시행되면 해당 연도의 경제성장률은 0.42%p 감소하고, 2차 연도에는 0.19%p, 3차 연도에는 0.11%p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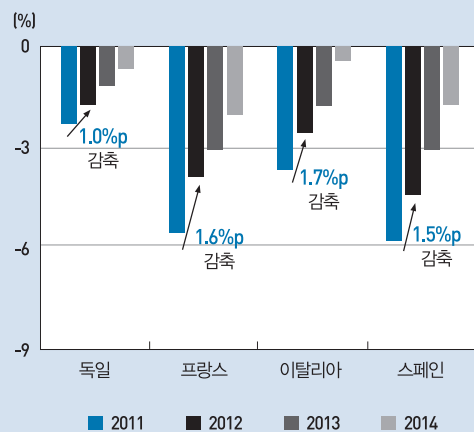
셋째, 전 세계 수요 둔화는 독일 등 수출 중심 국가의 역내 수입수요를 감소시켜 역내교역을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주요 교역대상국의 수입수요 감소로 수출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독일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38.3%(2010년)에 이른다. EU집행위원회의 계량분석 모델(QUEST III)에 따르면 독일의 내수가 1% 감소하면 여타 유로지역의 대독일 수출증가율은 약 0.4%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4</sup>

<sup>3</sup> Roeger, W. & Veld, J. (2010). Fiscal Stimulus and Exit Strategies in the 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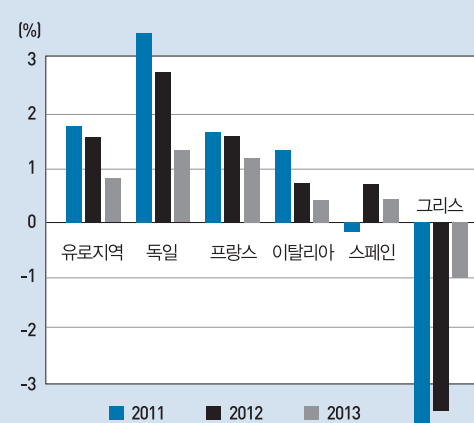
<sup>4</sup> European Commission (2010). European Economic Forecast.

#### ★ 유로지역 재정긴축 계획과 성장률 전망

유로지역 주요국의 재정긴축 계획('11~'14년)



유로지역 주요국의 경제성장률('10~'12년)



자료: Eurostat

#### 2012년에는 재정위기 여파가 비유로지역의

##### 경기에도 영향

유로지역의 재정위기와 경기둔화는 비유로지역의 다른 EU 회원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특히 영국경제는 2012년에도 민간소비 침체, 물가상승, 재정긴축의 3가지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영국경제의 3가지 딜레마는 첫 번째, 내수위축에서 벗어나려면 긴축의 강도를 완화해야 하지만 재정도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성장 측면의 딜레마

이다(성장률 1%대).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경기를 침체시켜서는 안 된다는 물가 측면의 딜레마이다(물가상승률 3%대). 세 번째는 긴축을 추진해야 하지만 국민의 반발이 고조되고 이것이 정치에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재정 측면의 딜레마이다(재정적자 7%대). 다만 2012년에는 부가가치세 인상충격 약화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2011년(4.5%)에 비해 완화되고 올림픽과 정부정책 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기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sup>5</sup>

금융위기 이후 2009년 견조한 성장세<sup>6</sup>를 보인 동유럽 국가들도 재정위기가 서유럽 은행에 영향을 끼쳐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2012년에는 지속성장이 어려울 전망이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에 따르면 서유럽 은행은 동유럽 은행의 채권을 75%가량 보유하고 있는데, 재정위기가 심화되면 이들은 자본확충을 위해 동유럽에 있는 자회사와 현지 법인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부실 자회사를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재정위기 심화 정도에 따라 동유럽 국가들은 2009년 위기 시 겪었던 은행권의 대출 위축, 경제성장 급락 등을 다시 경험할

<sup>5</sup>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비자(Visa)는 런던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소비지출 7.5억 파운드 증가, 생산 11.4억 파운드 증가, 소득 2.3억 파운드 증대를 전망하고 있다.

<sup>6</sup> 2009년 동유럽 금융위기 시 비엔나 이니셔티브(Vienna Initiative: 서유럽의 동유럽 은행에 대한 대출차환 조치)를 통해 금융시장이 안정되었으며, 그 후 이전(2001~2008년) 수준인 4%대 성장을 회복하였다.

수도 있다. 또한 실물경제에서도 유로지역 경기침체에 따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로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았던 국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국의 전체 상품수출에서 유로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체코(67.2%), 헝가리(58.1%), 폴란드(56.9%), 루마니아(56.8%) 순이다.

#### 2012년에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저성장할 전망

종합하면, 2012년 유로지역과 비유로지역의 성장이 둔화되며 EU 전체의 성장률은 1%를 밑돌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완화되며 민간소비가 조금씩 회복될 가능성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EU 경제는 글로벌 경기둔화, 유럽 국가의 재정긴축, 국가채무 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지수 하락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크게 약화될 것이다. 2011년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국은 견조한 성장을 달성하고 그리스, 포르투갈 등 주변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양극화 심화의 시기였다면, 2012년은 대부분의 회원국이 경기둔화로 수렴되는 저성장의 시기가 될 전망이다.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역내 정책공조

## Policy Coordination Necessary to Overcome the Fiscal Crisis

Major countries need to coordinate and implement internationally agreed policies for boosting their economies and for mitigating the fiscal crisis. These two sets of policy variables provide four possible scenarios and the world economy will be able to recover from the current turmoil in the best scenario in which major countries implement both sets of policies. Europe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this scenario. This is because the policy coordination problem in the eurozone is currently acting as the biggest risk to the global economy. Therefore the EU Summit on the 9th of December had an important meaning as the market perceived it as the last chance for eurozone countries to come up with a significant agreement on policy coordination.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되고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의 더블딥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방지’와 ‘세계경제의 더블딥 차단’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서둘러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sup>1</sup> 라가르드 IMF 총재는 주요국을 순방하며 유럽 재정위기 와 세계경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수준의 국제공조를 기대하기에는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 국제공조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국제공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취약, 주요국의 정치 일정 및 대내 갈등, 각국의 경제여력 차이, 유로지역 내부의 갈등 등의 장애요인을 극복해야 한다. 국제공조의 장애요인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취약해진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해서는 안정적인고 효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필수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국 주도의 G7 정책공조 체제’가 쇠퇴

해버렸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공조를 주도해야 할 미국과 중국이 오히려 대립과 갈등의 核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질서 안정을 이끌 수 있는 기구인 G20 체제의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거버넌스의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 헤게모니 확보를 위한 대립을 지양하고 세계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벌일 필요가 있다.

둘째, 정치적 리더십 확보가 절실하다. 선거가 임박한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 정부는 정치, 사회적 갈등 심화로 인해 대외 협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요국 정치 지도자는 자기 정파나 당장의 자국 이익보다 글로벌 경제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글로벌 시민사회의 성숙한 위기 대응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경기진작을 위해 신흥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경제상황이 악화된 선진국은 경기부양 여력이 부족한 반면, 경제상황이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신흥국은 경기부양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부양 여력이 있는 신흥국은 인플레이션 부담 때문에 경기진작에 미온적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신흥국의 물가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 원자재시장 개혁을 가속화하고 투기성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신흥국이 경기진작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한편 신흥국은 기존 인프라 확충, 사회안전망 구축,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넷째, 유로지역 내부의 갈등 해소다. 유럽 재정위기의 해법을 둘러싸고 위기 극복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독일, 프랑스 등 재정부담국 간 견해 차이가 여전하고, 재정부담국과 재정취약국 간의 입장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신흥국 등 비(非)유로지역 국가는 유로지역의 충분한 자구노력 없는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를 해소하려면 국제공조뿐만 아니라 역내공조가 필요하다.

### ★ 국제공조 장애요인



### 국제공조가 세계경제 향방을 좌우

앞으로 세계경제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공조 논의가 IMF와 G20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진작’과 ‘유럽 재정위기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이행 여부는 세계경제 향방의 중요 변수가 될 것이다.

2가지 국제공조 성공 여부에 따라 4가지의 세계경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다. 최선의 시나리오로서 2가지 공조가 모두 성공한다면 세계경제는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만일 2가지 공조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계경제는 글로벌 신용경색이 본격화되고 장기침체에 돌입하는 등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진작’과 ‘유럽 재정위기 방지’를 위한 2가지 공조가 모두 실현되도록 노력하되, 세계경제의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선책으로 한 가지 공조라도 먼저 성사시켜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유럽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공조가 경기진작을 위한 국제공조보다 더 시급하다. 유럽 재정위기 확산 방지에 실패하게 되면 금융 불안의 심화로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신흥국의 경기둔화가 촉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 ★ 국제공조에 따른 세계경제 시나리오

		유럽 재정위기 확산 방지	
		No	Yes
경기진작	Yes	재정위기 지속 세계경제 성장 둔화 (시나리오 2)	세계경제 성장세 회복 (시나리오 1)
	No	세계경제 장기 침체 (잃어버린 10년) (시나리오 4)	금융불안 완화 세계경제 성장 둔화 (시나리오 3)

### 6개 중앙은행이 공동 대응에 착수

유럽 재정위기라는 악재로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던 글로벌 증시에 모처럼 훈풍이 불었다. 지난 12월 1일 미국의 다우지수가 1만 2,000선을 넘어서고,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증시도 4% 이상 상승하였다. 그동안 급상승하던 유럽 각국의 국제금리도 하락하여 10년 만기 이탈리아 국제금리가 6.7%까지 떨어지는 등 채권시장도 안정세를 보였다. 이는 11월 30일에 미 연준 등 6개국 중앙은행들<sup>2</sup>이 전격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에 나선 결과다. 미국은 달러 스와프 금리를 절반으로 낮추고, 달러를 무제한 공급하기로 하였다. 중국 인민은행도 3년 만에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여 국제공조에 가세하였다. 이번 조치는 유럽 재정위기의 악

<sup>1</sup>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프레드 버그스텐(Fred Bergsten) 소장은 미 의회 청문회(2011년 10월 20일)에서 칸 G20 정상회의의 긴급 의제(An Action Plan for the G20)로 글로벌 경제성장 촉진, 유럽 재정위기 해결, 글로벌 금융규제를 제시한 바 있다.

<sup>2</sup> 미국, 유로지역, 영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 유로지역 국가 간 주요 쟁점별 견해차

재정부담국 내	이슈	독일	프랑스
	대내적 배경	기민당 연립정부는 정권 유지를 위해 재정부담 확대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반영해야 하는 입장	재정위기 확산으로 자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될 경우 재선에 패배할 것을 우려해 재정취약국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
	그리스 채무조정	높은 탕감 비율을 선호(60% 이상) - 민간의 부담을 늘림으로써 구제금융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	낮은 탕감 비율을 선호(40%) - 자국 은행이 그리스 국채에 가장 많이 투자했기 때문
재정부담국 對 재정취약국	이슈	재정부담국	재정취약국
	대내적 배경	구제금융 지원이 재정취약국의 모럴해저드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해야 하는 입장	정부의 고강도 긴축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각국의 정권 교체로 이어진 상황
	재정지원	재정취약국의 고강도 긴축을 요구 - 복지개혁 축소, 세원 확충, 세율 인상, 공공부문 축소 등	재정부담국의 지원 확대를 요구 - 구제금융 지원 조건 완화(금리, 긴축 강도), 지원규모 확대 등
	역내 경제구조	재정취약국의 경쟁력 확보를 요구 - 임금인상 억제, 산업 구조조정, 신산업 개발 등	재정부담국의 내수 확대를 요구 - 경기부양, 임금 인상, 소비진작 등

화로 인한 글로벌 신용경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위기에 몰린 유럽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해주기 위해 금융정책 분야에서 국제공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 조치는 단기처방일 뿐 결코 위기의 근본 치유책이 될 수 없다. 유럽에 시간을 벌어주는 차원에 불과하다.

유로지역 내부 갈등이 위기 해결의 걸림돌

이제 공은 유럽으로 넘어왔다. 유로지역 국가들이 해결책을 보여줘야 할 때다. 결국 유럽 재정위기는 재정정책 권한을 갖고 있는 유로지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회원국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로 인해 시원스러운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이러다보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지경으로 재정위기가 악화되었다. 위기 극복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독일, 프랑스 등 재정부담국<sup>3</sup> 간은 물론,

재정부담국과 재정취약국 간의 입장 차이도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독일과 프랑스는 위기 해법을 둘러싸고 갈등을 보여 왔으며, 앞으로 EFSF 추가 증액, 유로본드 발행, 재정통합 등의 이슈에서 갈등이 부각될 소지가 있다. 재정부담국은 재정취약국의 '先자구노력, 後금융지원'을 강조하는 반면, 재정취약국은 재정부담국의 재정지원 확대와 내수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유로지역 내부의 정책공조가 관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유로지역 국가들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12년에 이탈리아가 상환해야 할 국채 규모는 이자를 포함해 무려 3,600억 유로에 달한다. 특히 2012년 2~4월에 만기

<sup>3</sup> 신용등급이 AAA인 6개국(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룩셈부르크)

도래하는 이탈리아 국채는 1,600억 유로에 이른다. 현재와 같은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제2, 제3의 그리스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시장은 유로지역 국가들의 신속한 대응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유로지역 국가들은 공통된 위기극복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유럽 재정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EU 정상회의(2011년 10월 26일)에서 합의한 포괄적 대책(그랜드플랜)을 이행해야 한다. 먼저,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규모를 기존 1,090억 유로에서 1,300억 유로로 증액하고 국채 민간손실 비율도 기존 21%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둘째, 은행의 자구 노력과 재정투입 및 EFSF의 자금 지원을 통해 유럽 은행의 자본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은 91개 유로지역 은행이 핵심자기자본비율 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150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up>4</sup> 셋째, 당초 2,500억 유로에서 4,400억 유로로 늘어난 EFSF를 1조 유로로 증액하는 것이다. EFSF를 1조 유로로 증액하면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회원국 국채 매입, 은행 자본 확충 지원, 위기 예상 회원국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유럽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앞으로 ECB의 기능 강화, 유로본드 발행, 유로지역의 재정통합 등과 같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로지역 국가 간의 정책공조가 관건이 될 것이다.

ECB와 유로지역 국가 간 빅딜 필요

이런 의미에서 지난 12월 9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당장 시급한 과제는 위기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벽을 구축하는 일이다. 현재 방화벽으로 마련된 EFSF의 실제 가용자원은 2,500억 유로에 불과해 1조 유로로 늘리는 작업이 시급

<sup>4</sup> 시장에서는 2,000억 유로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하다. 하지만 시장 악화와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의 미온적 반응으로 인해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20%의 채권 손실률로 5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했던 신용보강방법(Credit Enhancement Approach)도 시장 악화로 인해 30%까지 채권 손실률이 상향 조정되었고, 공동투자기금(Co-Investment Funds)을 설립해 신흥국 자본을 대거 유치하려던 계획도 난관에 봉착했다. EFSF 증액은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포괄적 해법(그랜드플랜)의 핵심 사안이다. 만일 EFSF 증액이 지지부진할 경우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다. 현재 꼬여 있는 EFSF의 증액 작업이 탄력을 받으려면 일단 채권시장의 안정이 시급하다. 채권 손실률 인하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채권시장 안정(국채금리 하락)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종대부자로서 유럽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는 수밖에 없다. 즉,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 ECB가 국채 매입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ECB는 회원국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우려해 국채 매입 확대를 꺼려왔다. 만약 국채 매입을 늘려 국채금리가 하락하면 회원국 정부가 재정건전화 노력을 게을리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드라기 ECB 총재는 최근 유럽의회 연설에서 이러한 우려가 불식되어야 국채 매입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따라서 유로지역 17개국이 재정긴축 노력을 강제화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로지역 국가들이 공동의 위기극복 의지를 시장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확실한 방법이다.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유로지역 국가들이 재정건전화 규율을 강화하고, 그 대신 ECB가 국채 매입을 확대하는 빅딜(big deal)이 절실하다. 만약 적어도 유로지역 17개국이 재정협약(Fiscal Pact)<sup>5</sup>을 체결해 이행한다면, ECB가

<sup>5</sup> 안정협약은 회원국의 재정 및 예산정책을 EU 차원에서 사전 조율하고 통제하며, 실제 위반 시 제재조치를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보다 구속력이 훨씬 강한 협약으로, 3년 이상 소요되는 리스본조약 개정 대신 회원국 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2012년부터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우려해온 회원국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어 ECB가 국채 매입을 확대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 유로지역의 자구노력이 수반된다면 신흥국 자본도 참여 가능

IMF는 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여 G20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유로지역의 노력만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가 어렵고, 자체 능력으로 해결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위기가 악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아직 유로지역 지원에 미온적이다. 우선, 미국과 영국 간, 그리고 유로지역 간에 재정위기 해법에 대한 이견이 상존해 있어 G20 차원의 국제공조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미국과 영국은 ECB가 미 연준이나 영란은행처럼 최종대부자로서 국채 매입 확대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독

일과 ECB는 미국과 영국의 요구에 부정적이다. 둘째는 자본이 풍부한 신흥국은 유로지역의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BRICs는 EFSF 투자에 직접 나서기보다 IMF 등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실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유로지역 회원국들의 재정정책에 대한 규율 강화와 ECB의 국채 매입 확대 등 유로지역의 자구노력이 강화될 경우 국제사회의 태도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 여력이 있는 비(非)유로지역 국가가 자국의 국부펀드를 활용하거나 IMF의 재원 확충에 나서 EFSF의 증액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로지역 재정취약국의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럽 재정위기 해소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 중국의 對EU 투자 확대

### A Rise in China's Investment in the EU

As the fiscal crisis spreads throughout the EU, China's investments in the EU are expanding fast. China's investment decision is not simply based on short-termism where it purchases cheap targets during the crisis. As China raises its investment in Europe, it is seeking ways for major countries to recognize China's full-market economy status and to stop pressuring China to appreciate its currency. Also, China is likely to ask Europe's major countries to ease their restrictions on China's exports of high-tech goods and arms. Whether China's investment is through the EFSF or FDI, China is looking for ways to strengthen its relations with the EU and shape its image as a responsible global player that participates in solving global problems.

#### EU는 중국의 최대 대외직접투자 국가

유럽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동안 중국의 對EU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중국의 전 세계 대외직접투자는 2002년에서 2010년 사이에 연평균 49.9% 성장률을 보일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0년 688.1억 달러로 전통적인 대외직접투자 대국인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를 차지하였다. 760.1억 달러로 세계 4위를 차지한 홍콩의 대외직접투자액을 합치면, 중국의 대외직접투자는 미국 다음인 세계 2위 수준이다.

중국의 대외직접투자는 특히 EU에 집중되고 있는데, 2010년 중국의 對EU 투자는 59.63억 달러로 2009년 대비 무려 101%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의 주요 해외직접투자 공략지로 알려진 아프리카의 직접투자 증가율을 초과한 수치이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총액의 10% 정도에 해당한다. 반면, 중국의 對미국 투자는 13.08억 달러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지만, 對EU 투자에 비하면 금액이나 증가율 모두 뒤쳐진 상태다.<sup>1</sup> 이는 EU가 중국의 최대 투자대상 지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2011년 상반기 중국의 對EU 투자는 2010년 상반기보다 9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對EU 투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sup>

#### 중국에 지원 요청을 하는 EU

EU 회원국들이 잇따라 재정위기에 빠지면서 이제까지 경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중국의 對EU 투자가 정치적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최근 유로지역을 대표하여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유럽재정안정기금(이하 EFSF)에 대한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위기 해결방안 중 하나인 EFSF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원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럽의 요청에 대해 중국 당국은 “중국은 열린 자세를 갖고 있으며, 유럽과 다각도로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EFSF 투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오히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언론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EU에 대한 재정 지원을 수단으로 삼아 인위적인 환율정책과 인권 탄압 등에 대한 서방의 비판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의 환율정책과 지적재산권 침해, 자국 기업을 위한 원자재 수출 제한 등 약탈적 무역정책이 ‘세계 경제문제의 원인’이라며, EU와 미국은 중국의 정책 변화를 압박하고, 중국이 저항력을 높이도록 방조해선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sup>3</sup> 중국의 對

<sup>1</sup> “欧洲成为中国对外投资增速最快目的地.” (2011. 11. 21.). 『21世纪网』.

<sup>2</sup> “今年上半年中国对欧直接投资同比增长99.2%.” (2011. 9. 21.). 『新华网』.

<sup>3</sup> “유럽, 중국에 손 벌리기 전에 정치적 의지부터 보여라.” (2011. 11. 7.). 『프레시안』.







★ 전 세계 GDP 중 미국과 중국의 점유율 추이(1980~2010년)

(단위: %)

국가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중국	1.7	2.5	1.6	2.5	3.7	4.9	9.3
미국	25.2	33.7	26.3	24.7	30.7	27.6	23.1
미국/중국	14.6	13.7	16.1	10.1	8.3	5.6	2.5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를 토대로 계산

★ 전 세계 GNI 중 미국과 중국의 점유율 추이(1980~2010년)

(단위: %)

국가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중국	2.0	2.9	3.6	5.6	7.0	9.5	13.4
미국	22.9	23.4	22.8	23.1	23.9	22.4	19.2
미국/중국	11.2	7.9	6.3	4.1	3.4	2.4	1.5

주: GNI는 구매력 기준(PPP)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를 토대로 계산

EU 영향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우려 즉, 중국이 EFSF 투자로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미국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다.

세계 경제위기 때마다 중국의 역할론이 대두

중국의 對EU 투자 증가는 단순히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진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국제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21세기 국제질서 변화의 핵심 화두는 ‘중국의 부상(The Rise of China: 中國崛起)’이다. ‘중국의 부상’은 이제 서구가 중국에 대한 적대적 경계심을 드러낸 ‘중국위협(The China Threat: 中國威脅)’론의 담론 수준을 넘어 이미 세계 질서의 변화를 추동하는 객관화된 현상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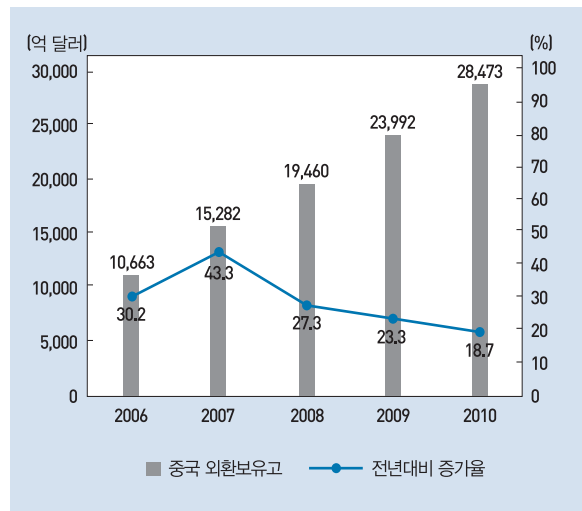
중국의 국력은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1985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실질 GDP가 연평균 10% 이상 초고속 성장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초고속 성장으로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세계 2위로 현저하게 상승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세계경제에서 미국경제의 비중이 축소된 것과 비교된다. 중국은 국민소득(GNI)의 구매력 기준(PPP)으로는 이미 일본을 월등하게 앞섰고, 미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

‘중국의 부상’이 전 세계인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로 각인된 것은 2008년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 이후 중국이 글로벌 경제 권력으로 급부상하면서부터이다. 전문가들은 세계 패권 권력인 미국이 경제 및 금융체제를 방만하게 운용함으로써 초래된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 미국은 경제력이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에서의 영향력도 쇠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전 세계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세계경제의 위기 국면에서도 중국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경제규모 면에서 미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였고,

★ 중국의 외환보유고와 외환보유고 증가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외환보유고와 무역 규모 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세계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기에 이르렀다. 2010년 연말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조 8,473억 달러로 2009년 말보다 4,481억 달러 증가하였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고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세계 경제위기 이후 달라진 중국의 경제규모와 위상에 걸맞게 경제적 측면에서 해외직접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중국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국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은 현재의 위기를 ‘중국의 부상’을 세계적으로 각인시키고 그동안 對EU 관계에서 숙원 과제로 남아 있던 문제들을 해결할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EFSF 투자 지원을 계기로 시장경제 지위 인정 요구

이러한 차원에서 중국은 EFSF에 대한 투자 지원을 통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인정, 위안화 절상 압박

중단, 첨단기술 제품 수출제한 해제, 무기 수출금지 해제 등 그동안 EU에 요구해온 사안들을 재차 요구할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원자바오(温家宝) 총리는 이미 2010년 10월 유럽 순방 기간 동안에 유럽과의 관계 발전은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 방침이며, 따라서 유럽 각국의 채무 위기 발생 시 중국은 유로화 채권을 줄이지 않고 유로화가 안정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 과정에서 원자바오는 유럽에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인정과 첨단기술 제품 수출제한 해제, 보호무역주의의 타파 등을 요구했다.<sup>4</sup> 또한 위안화 평가절상 압박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sup>5</sup>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 다롄(大连)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유럽과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은 유럽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럽이 중국의 완전한 시장경제 지위를 조기에 인정해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유럽의 對중국 시장경제 지위 인정이 對EU 투자 확대의 전제 조건임을 표명했다.<sup>6</sup>

그러나 이러한 요구사안들의 상당수는 미국 주도로 서방세계가 중국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온 것이기 때문에 유럽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중국 역시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상기한 문제들은 중국이 EU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것이지만 EFSF에 대한 투자 지원을 수단으로 갑자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더구나 EU 구조의 특성상 EU 전체를 상대로 한 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중국을 바라보는 유럽 각국의 시각이 일치하지도 않고, 사안마다 각국의 입장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술한 현안들은 중국이 유

<sup>4</sup> “温家宝：希望欧方尽快承认中国完全市场经济地位。” (2010. 10. 3). 『中国新闻网』.

<sup>5</sup> “欧洲不要参与施压人民币本报记者.” (2010. 10. 11). 『国际金融报』.

<sup>6</sup> “温家宝达沃斯论坛致辞:对中国经济信心坚定.” (2011. 9. 14). 『中国新闻网』.





럽 각국과 양자 간 협의를 통해 차례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인 것이다. 다만, 중국은 상술한 이슈들을 상기 시킴으로써 중국에 대한 EU의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에서 유럽의 재정위기 국면을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사실, 중국의 완전한 시장경제 지위 획득은 WTO 협정에 따라 2016년이면 가능하다. 그럼에도 중국이 EU에 시장경제 지위 인정을 요구한 것은 EU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몇 년 앞당겨 인정함으로써 유럽의 對중국 태도 변화의 상징으로 삼겠다는 의도다. 즉, 중국이 EU에 대한 투자 확대를 명확히 표할 테니 유럽의 지도자들은 중-EU 관계를 전략적으로 전환 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중국은 EFSF에 대한 투자를 기점으로 EU와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EFSF에 대한 투자 지원은 중국이 유럽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포트폴리오 분산 측면에서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이를 미국에 대한 외교적 지렛대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결국, 이는 그동안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 EU의 관계 약화를 위한 작은 시도가 될 수 있다. 중국의 EFSF 투자 지원이 세계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임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미국이 견제에 나선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 중국의 부상과 헤게모니 이동을 입증하려는 의도

물론 현 국면에서 중국이 시장경제 지위 획득이나 유럽의 對중국 첨단기술 제품 수출제한 금지 해제 등 상술한 목표를 제대로 관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이러한 목표들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의 EFSF에 대한 투자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유럽 시장이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만큼 유럽 시장의 붕괴를 막아야 중국경제가 존속할 수 있으므로 중국은 EFSF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EU 각국의 부채위기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

#### ★ 2010년 중국의 주요국 및 주요 지역에 대한 상품 수출입액과 증가율 (단위: 억 달러, %)

국가 및 지역	수출액	전년대비 증가율	수입액	전년대비 증가율
EU	3,112	31.8	1,685	31.9
미국	2,833	28.3	1,020	31.7
홍콩	2,813	31.3	123	40.9
아세안	1,382	30.1	1,546	44.8
일본	1,211	23.7	1,767	35.0
한국	688	28.1	1,384	35.0
인도	409	38.0	208	51.8
대만	297	44.8	1,157	35.0
러시아	296	69.0	258	21.7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수습하지 않으면 위기가 주변국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고, 나아가 아시아 은행들과 기업들의 차입 부담이 증가해 중국경제에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적당한 시점에 EFSF에 대한 투자 지원을 선언하면서 ‘부상한 중국’의 능력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을 다하였다는 이미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1997년 말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중국이 보여준 일관된 태도였으며, 중국은 실제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1997년 말 당시, 중국 당국은 위안화 평가절하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해소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것은 동아시아 역내에서 중국의 지도적 역할이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지난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때도 4조 위안에 달하는 천문학적 경기부양책을 내놓음으로써 공황 상황에 직면한 세계경제를 구제한 바 있다. 반면, 미국 정부는 현재 자국의 국내 경제문제 해결에 집중할 뿐 유럽 재정위기 해소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중국의 EFSF에 투자 지원을 계기로 세계경제의 헤게모니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빠르게 이동 중임을 또다시 세계 각국이 목도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보면, 서구의 주도하에 움직이던 세계가 이제 중국의 주도하에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EFSF 투자 지원 움직임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홍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지역연구소





# 유럽기업들의 재정위기 생존전략

## European Companies' Survival Strategy During Crisis

European companies are experiencing difficult times with a declining growth rate of private consumption and a worsening fiscal crisis. As a result, their sales in Europe are not performing well and their access to capital is becoming more difficult, which in turn is leading to a decline in corporate investment and industrial production. Despite this gloomy situation, a number of European companies are performing better than others. These companies show three common characteristics - i) they have been strategically targeting emerging markets for a number of years before and after the global economic crisis, ii) they have been attracting long-term capital from emerging countries' sovereign wealth funds and iii) they have hit the right spot on bringing down the price and maintaining the quality of their produ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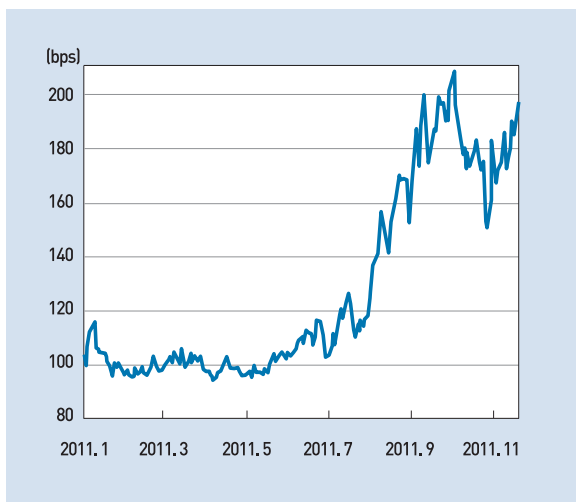
### EU의 소비 증가율이 다시 하락세에 진입

2011년 EU의 경제회복이 지연되며 민간소비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EU의 민간소비 증가율이 2010년 4/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0%를 기록한 후 2011년 1/4분기에는 0.5%, 2/4분기에는 0.4%로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2010년 EU의 실물 경제가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1년에 재정위기가 심화되며 소비가 다시 위축되고 있다. 재정위기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1년 2/4분기에 각각 -6.1%, -3.5%, -2.4%를 기록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늘어난 유동성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며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U의 소비자신뢰지수는 2011년 초 -13에서 2011년 6월 -11로 소폭 상승했으나, 재정위기가 다시 심화되며 8월에 -17, 10월에 -20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기업들의 소매판매도 감소하고 있다. 2010년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전년 동기 대비)를 보이고 있던 EU의 소매판매가 2011년 5월에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9월에는 0.63% 감소했다.

### 재정위기가 유럽 기업에 미치는 영향

2011년 하반기 그리스발 재정위기가 신용경색으로 이어지며 유럽의 사업 환경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2012년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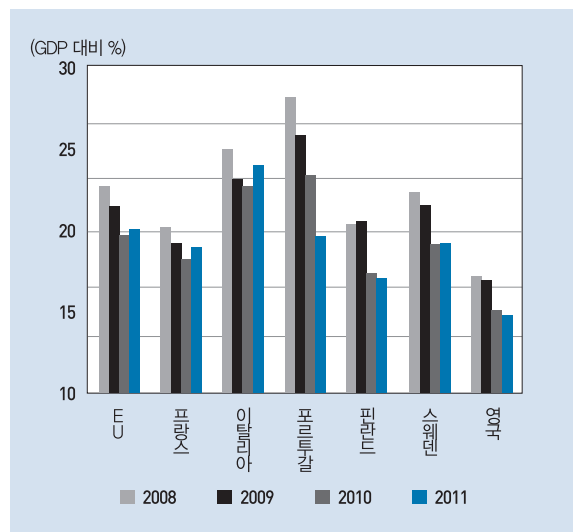
### ★ 유럽 주요 기업의 CDS 프리미엄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 금융시장도 곤두박질치며 유럽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탈리아 유틸리티 회사인 에넬(Enel)은 2011년 7월에 발행한 6년 만기 기업채의 금리 스프레드가 177bps로 2007년(62bps)의 세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현상은 재정위기국 기업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로지역 전반에서 신용경색이 심화되며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영국의 기업들마저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시리얼 회사인 위타비스

### ★ 비금융권 기업 투자



주: 매년 2/4분기 기준  
자료: Eurostat

(Weetabix)는 최근 부채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기 위해 금리를 200bps나 올려줘야 했다. 금리 상승과 함께 유럽기업들의 CDS 프리미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유럽 125개 주요 기업의 CDS 프리미엄(Markit iTraxx Europe Index)은 2011년 11월 21일에 연초 대비 94bps 증가한 198bps를 기록했다. 이는 1,000만 유로 규모의 유럽 주요 기업 채권에 대한 부도보험 비용이 연간 19만 8,000달러에 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의 M&A 시장도 침체에 빠지며 외부투자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딜로직(Dealogic)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4분기 유럽 내 M&A 규모는 6,3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분의 1 정도 낮은 수준이었고, 영국은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불어 2011년 11월 2일 기준 지난 1년간 유럽에서 무산된 M&A 건수는 293건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8년의 285건을 상회했다. 2011년에 무산된 M&A의 규모는 2010년의 두 배 수준인 1,313억 달러에 달했다.

이같이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시장이 불안해지자 유럽 기업들의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EU의 GDP

대비 비(非)금융권 기업 투자 비율은 2008년 2/4분기 23.8%에서 2011년 2/4분기 20.9%로 하락하였다. 포르투갈, 핀란드, 영국에서 기업투자가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11년 하반기에는 다시 투자 비율이 하락세로 돌아섰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소비와 투자 둔화는 산업생산 감소로 연결

EU의 소비 위축과 투자 감소가 산업생산 둔화로 연결되고 있다. 2011년 9월 EU의 산업생산은 1.4% 감소했는데, 이는 2009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이다. EU의 자본재 생산은 전월 대비 3.0%, 중간재 생산은 1.4%, 소비재 생산은 0.4% 줄어들었다. 9월 지표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EU의 경제회복을 이끌어가고 있는 독일의 산업생산이 2.9%나 감소했다는 점이다. 또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산업생산도 각각 1.9%와 4.8% 줄어들었다.

EU의 3/4분기 경제성장률은 0.2%에 불과했는데, 향후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며 산업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유럽의 경기가 2012년까지 둔화되며, 많은 유럽 기업들이 휘청거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월 10일 유럽의 최대 엔지니어링 기업인 지멘스는 2012년에 기업수익이 정체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EU의 기업체감지수는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66.9까지 하락하였으나, 2010년 들어 경제회복과 함께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2011년에 재정위기가 다시 확산되며 기업체감지수가 2/4분기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2011년 3월 107.4에서 10월 93.8로 크게 하락했다.

### 유럽기업들의 생존전략

사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이어가는 기업들이 있다. 이 기업들의 성공요인은 1) 신흥국 판매를 강화하고, 2) 신흥국 자금을 적극적인







로 유지하며, 3) 낮은 가격과 높은 삶의 질의 균형을 맞춘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 ① 신흥국 판매 강화

지난 수년간 신흥국 판매를 강화해온 유럽 기업들이 선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최대 럭셔리(패션, 화장품, 샴페인 등) 기업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프랑스)는 지난 수년간 신흥국을 공략한 결과 최근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LVMH 그룹의 매출은 2010년 상반기 91억 유로에서 2011년 상반기 103억 유로로 증가했고, 수익은 18억 유로에서 22억 유로로 확대되었다. LVMH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와 기타 지역)에 매장 수를 2010년 6월 말 635개에서 2011년 6월 말 669개로 늘렸고, 이를 반영하듯 전체 매출에서 신흥국 비중이 35%에서 38%로 확대되었다.

럭셔리 스포츠카를 생산하는 포르쉐(독일)도 신흥국의 성장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유럽과 미주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판매대수가 2011년 1월과 9월 사이 전년 동기 대비 54.2%나 증가한 3만 1,954대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 내 판매대수는 81.6% 증가하는 등 2011년은 신흥시장의 잠재력을 보여준 한 해가 되었다.

이 같은 추세가 고가품 시장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통신회사인 보다폰은 지난 11월 8일에 2011년 영업이익의 전망치를 기존의 110억~118억 파운드에서 114억~118억 파운드로 상향 조정했다. 보다폰은 남유럽에서는 수익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으나 인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에서는 매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영업이익의 전망치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보다폰의 인도 매출은 2011년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16.8%와 20.1%나 증가했다.

폭스바겐(독일)은 인도시장에서 소형차를 연이어 출시하며 기존 마켓 리더인 마루티스즈키와 타타모터스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로 인해 마루티스즈키의 점유율은 2009/10년 50.0%에서 2010/11년

48.7%로 감소했고, 타타모터스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13.2%에서 12.9%로 역시 소폭 하락했다. 반면, 폭스바겐은 인도에서 폴로(Polo)와 벤토(Vento)를 출시하며 점유율이 0.3%에서 2.6%로 증가했다.

#### ② 신흥국 자금 유치

유럽에서 투자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유럽 기업들은 카타르 등 중동의 산유국과 신흥국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연가스 수출을 통해 막강한 자금력을 갖게 된 카타르의 국부펀드 및 정부관련 기관들은 지난 수년간 유럽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해나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유럽 부실은행들의 구원투수로 부상하기도 했다. 카타르는 2009년에 폭스바겐(독일)의 지분 17%를 인수했고, 2010년에는 영국의 랜드마크인 헤로즈 백화점을 인수하기도 했다.

재정위기가 불거진 2011년에 카타르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기 시작했다. 카타르는 최근 포르투갈 전력회사인 에너지아스 드 포르투갈(약 1.6억 유로), 스페인 전력회사인 이베드롤라(약 20억 달러), 스페인의 바자딜라 항만 건설(약 4억 유로)의 지분을 매입했다. 또한 파리 생제르망 축구 구단의 지분 70%를 인수하기도 했다. 재정위기로 휘청거리는 금융기관들도 카타르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 카타르는 위기에 빠진 그리스의 유로뱅크EFG-알파뱅크의 지분을 6.9억 달러에 매입했고, 벨기에의 KBC그룹(14억 달러)과 텍시아(미공개)의 주요 사업들을 인수하며 구원투수로 부상하였다. 2012년에도 유럽 기업들은 신흥국의 자금을 유치해 파산위기를 모면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③ 가격은 저렴하지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상품으로 공략

내수시장에서 성공한 유럽 기업들의 특징은 영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 중 한 곳인 세인스베리의 광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0년 영국의 실질 처분가능소득

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였고, 이 같은 추세는 201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로 2.9%의 임금상승률을 상회했다. 또한 경기 회복을 위해 정책금리가 낮게 유지되어 저축이자소득도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2010년 영국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0.8% 하락하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임금상승률이 2011년 4월 기준 1.4%에 불과했던 반면, 물가상승률은 하반기에 5%까지 치솟았다. 또한 2011년 1월 영국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17.5%에서 20.0%로 인상시킨 것이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영국인들의 생활고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11년 초 영란은행 총재는 영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1920년대 이후 가장 장기간 악화되고 있고, 2011년 실질소득이 2005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이 경기가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세인스베리의 매출은 2011년 3월과 9월 사이 6.1% 증가(117억 파운드)했다. 세인스베리가 8월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풍요로운 생활을(Live well for less (than you thought))>이라는 캠페인을 시행하면서 여타 경쟁업체들에 비해 선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격인하 전쟁에서 테스코와 아스다 등이 공격적으로 나오자 세인스베리는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물론 세인스베리도 가격인하 전쟁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나 9월에 나온 세인스베리의 TV 광고에는 가격에 대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른 많은 슈퍼마켓 광고에는 저금통이 나오고 1파운드 동전들이 굴러다니는데 말이다.

세인스베리 광고는 신나는 음악과 함께 시작된다.<sup>1</sup> 이 노래는 디즈니 만화인 정글북에서 곰 발루가 정글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욕심을 버리고 행복하게

<sup>1</sup> 유튜브(<http://www.youtube.com/watch?v=AqSkNB-1nZs&feature=related>)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주인공인 모글리에게 가르쳐줄 때 나오는 Bare necessities라는 곡이다. 어린 아들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아빠를 깨워 아침식사를 달라고 하자 아빠는 신선한 계란과 우유로 반죽을 만들어 팬케이크를 구워준다. 아침식사 후 아빠와 아들은 장난을 치며 소풍 갈 준비를 해서 집을 나선다. 이들은 기차를 타고 해변으로 가 실컷 놀고, 점심식사로 아빠가 직접 숯불에 구운 소시지를 호밀빵에 넣어 샌드위치를 만들어준다. 저녁까지 신나게 놀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빠가 아들에게 홈메이드 파이를 구워준다. 엄마가 집에 돌아와 소파에서 잠든 아빠와 아들을 보고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며 광고가 끝난다.

이 광고는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삶의 행복은 ‘집밥’에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2000년대에 경기호황을 누리며 영국에서는 외식문화가 빠르게 확산되었는데, 이때 잊혀진 요리하는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다시 일깨워주려는 전략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으니 경제가 어려워져도 가격이 싼 냉동식품과 패스트푸드에만 의존하지 말자는 것이다. 배경음악에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 곁에 있어요”, “세상 어디든, 그 어떤 것도 우리 집만 못해요”라고 한다. 팍팍한 삶에 희망과 감동을 준 이 광고는 2011년 하반기에 영국에서 큰 히트를 쳤다.

#### 2012년: 침체 속에서 기회 찾기

2012년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에서 살아남은 유럽 기업들에게 기회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신흥국에서는 선진국 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둔화되며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시장을 겨냥해 탄탄한 전략을 구축해온 유럽 기업들은 신흥국 경제와 함께 견고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흥국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럭셔리 구두회사인 살바토레 페라가모(프랑스)는





2012년에 중국이 최대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또한 2012년에는 글로벌 M&A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 대표 증권회사, 회계법인, 법률회사 등을 상대로 한 ‘두잉 더 딜 (Doing the Deal)’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2012년에 M&A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불안이 심화되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유럽 기업들이 최근 주가 폭락으로 가치가 크게 저평가된 기업들을 적극적

으로 매입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 둔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재정 개선을 위해 일부 자산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유럽 경제가 악화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할 것이다. 내수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경기호황 당시 잊고 있었던 소소한 욕구를 다시 공략하면서 경기침체를 같이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경훈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EU 법체계와 FTA 등 대외적 협정의 적용

## EU Legal Institutions and the Effectiveness of EU's External Agreement

As the Korea-EU FTA has entered into force, trade ties between Korea and the EU are expected to strengthen. In order to benefit from this trend, Korean companies need to be better aware of possible conflicts that could arise with EU members when trading and ways to solve them. Understanding EU institutions for trade conflict resolutions and EU's external trade policies and their effectiveness is also important. Even for those Korean companies with a long trade history with the EU, they need to be aware of the changes which were made with the adoption of the Lisbon Treaty and study trade related precedents.

### FTA 환경에서의 분쟁해결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이해 필요

한-EU FTA가 발효된 지 6개월이 지났다. EU 국가들의 재정위기 속에서도 한국과 EU 간의 누적교역량은 상당히 증가하였다. 한-EU FTA로 EU와의 경제교류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은 물론 그에 따른 통상 등 분쟁 해결방식도 꽤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EU FTA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패널판정방식과 분야별 특별 분쟁해결방식 이외에 계약 당사자 간이나 EU 내의 경제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들에 대한 해결방식도 FTA 환경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고 잠재적 분쟁들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EU 법체계에 대한 폭 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분쟁해결에 이용하는 제도와 함께 EU의 공동 통상정책과 FTA 같은 대외적 협정행위의 EU법 내에서의 지위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9년 12월 1일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다소 변화된 EU 법체계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과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EU 법체계의 구성과 법규범의 효력

우선 EU 기관으로는 회원국 국민의 직접선거로 구성되는 유럽의회, 회원국들의 정부 수반 등으로 구성되는 유럽이사회, 회원국 장관들로 구성되는 EU이사회, EU의 주요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하는 기관인 집행위원회, EU사법재판소, 유럽중앙은행, 감사원 등이 있다. 그중

유럽의회는 EU가 확대됨에 따라 권한이 커지고 있다.

EU 법규범에는 EU 설립조약과 그 개정조약인 1차 규범이 있고, 그에 근거하여 EU 기관들이 발하는 2차 규범이 있다. 2차 규범으로는 ① 법률과 다소 비슷하게 일반적 범위를 가지는 하위 법령인 규칙(Regulation), ② 결과에 대해서만 회원국들을 구속하고, 실시 형태나 수단에 대해서는 국내기관들의 권한으로 남겨놓는 지침(Directive),<sup>1</sup> ③ 회원국, 기업, 개인들에 대하여 직접적 의무를 부과하는 결정(Decision), ④ 기관들의 구속력 없는 권고(Recommendation)와 의견(Opinion) 등이 있다. 그 외에 EU가 국제적 차원에서 제3국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하는 국제조약, 비(非)성문법으로서 EU법의 일반원칙 등이 있다. 그중 규칙과 지침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위와 같은 법규범 중 1차 규범, 권고와 의견을 제외한 2차 규범과 국제조약은 회원국들의 국내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회원국들은 물론 회원국 국민에게도 직접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이른바 직접적인 효력이 있다. 다만, 사법재판소는 지침이 회원국의 국내입법 전환절차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침의 직접효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지침의 규정들이 명확하고 무조건적인 것이어야 하고, 지침의 직접효

<sup>1</sup> 회원국의 선택에 따라 가장 적당한 입법적 방식을 정하여 전환할 수 있고,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행정적인 지시 등의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는 수직적인 관계의 분쟁에만 원용될 수 있으며<sup>2</sup>, 원칙적으로 전환절차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침의 전환기간이 경과되지 않아도 개인은 국내 법원에 대하여 합치해석을 요구할 수 있고, 회원국이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U 법규범은 회원국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다. 따라서 첫째, EU 회원국 법원은 EU 법규범에 배치되는 국내법 규범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적용의 배제). 둘째, EU 회원국 국내법은 EU 법규범에 맞추어, 특히 지침 범위 내에서 해석해야 한다(합치 해석의무). 셋째, 개인이 국가의 EU 법규범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を負는다. 다만, 국내법원이 배치되는 국내규범 대신 EU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은 직접효과 있는 경우에 한한다(대체의 원용). 이러한 EU 법규범의 우위성이 회원국들의 헌법에서도 인정되는 것인지는 국가에 따라 논란이 있다.

### EU 법규범의 사법적 통제와 분쟁해결방식

EU 체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심화되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럽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제도적 차이 등으로 EU 법규범의 적절한 이행과 구체적인 해석에 많은 분쟁이 있었다. 이러한 분쟁들은 EU와 회원국 간, 회원국 간, 회원국과 제3자 간에 다양하게 발생했는데, EU 체제의 유지와 적절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쟁해결방식이 마련되어 있다.

#### (1) 불이행 소송과 선결적 의견조회

우선 회원국들의 EU 법 준수를 위한 통제수단으로 불이행 소송(Enforcement action)과 선결적 의견조회(Preliminary reference)가 있다. 불이행 소송은 회원국이 EU 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법재판

소가 이를 선언하는 내용의 소송<sup>3</sup>이다. 여기서 불이행이라 함은 EU 법에 반하는 적극적 조치와 소극적 조치를 모두 포함하고 과실 유무를 불문하며, 모든 국내기관들이 포함되고, 대상 회원국의 어느 지역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EU 집행위원회나 회원국이 불이행 선언소송을 제소할 수 있는데, 회원국이 집행위원회에 제소하면, EU 집행위원회가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일단 불이행 선언이 있으면 관련 회원국은 불이행 상태를 종료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도록 유도된다. 사법재판소의 불이행 인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다음 사법재판소에 강제이행금의 성격을 가진 벌과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선결적 의견조회는 회원국의 국내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EU 법령의 유효성과 해석에 관하여 EU 사법재판소(EU court of justice) 또는 일반 재판소(General court)에 의견을 조회하는 것이다. 상당수의 분쟁들이 회원국 내 국내법원에서 진행되고 사법재판소 등의 조회의견이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EU 회원국들과의 거래로 인한 분쟁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다. 당사자들도 국내법원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국내법원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의심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한편으로는 직권으로 조회할 수도 있다. 조회를 받은 사법재판소 등은 필요하다면 의견조회 범위 내에서 질의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고 질문을 보충할 수도 있으며, 해석에 관한 질의를 유효성의 문제로 변환할 수 있고 국내법원이 명시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던 법령에 대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EU 법령에 불합치한다는 사법재판소의 결정은 의견 조회한 국내법원을 구속할 뿐 아니라 그 의견에 부합하는 새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강제하지만, 예

외적으로 국내법원은 당해 사건에 적당한 회신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2) EU 기관들의 행위에 대한 취소소송 등

EU 기관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부당한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취소소송, 위법성 항변, 부작위 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이 있다. 그중 EU 회원국과 거래하는 제3자에게는 실제 분쟁에서 기관들의 위법한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과 위법성의 항변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취소소송(Annulment action)은 입법행위(2차적 규범), EU이사회, EU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의 행위 중 권고(Recommendations) 및 의견(Opinions)을 제외한 행위, 제3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갖는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행위 등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다. 구체적인 취소대상은 그 명칭과는 무관하게 법적 강제력을 가지며, 제소자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면 취소할 수 있어 사법재판소는 조사부서의 내부조사, 집행위원회의 발표(Communication), 행동수칙, 집행위원회의 통지, 구두결정, 국제협정 체결과 관련된 결정 등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sup>4</sup>

취소소송은 조치의 공포 또는 개별적 고지일로부터, 혹은 고지가 없는 경우 알게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회원국과 EU 기관은 특권적인 지위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반면, 개인 또는 법인은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나 직접적이고 개별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제소할 수 있다. 재판 결과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는 행위의 취소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은 대세효가 있다. 그러나 행위 내용의 변경, 다른 행위로의 대체, 이행 또는 금지 명령, 과징금 지급 명령을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기관들은 취소결정의 집행내용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부작위 소송의 대상이 된다.

위법성의 항변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소송당사자들이 EU의 기관, 조직, 기구들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절차에서 적용 배제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등 제한적인 조건들을 완화하여 위법한 규칙 등의 적용으로부터 사적 당사자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위법성 항변은 부수적인 권리주장 절차이므로 국내법원이 절차상 직접 위법한 행위를 배제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사법재판소 등에 대한 선결적 의견조회 절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분쟁의 쟁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한다. 위법성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일반적으로 위법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위법행위의 결과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적용배제 효과는 법률상 기판력이 없으며 제3자가 이를 원용할 수도 없다.

그 외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EU 기관 및 기구들이 협약들에 위배하여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법재판소에 그 이행을 요구하는 부작위 소송(Action for failure to act)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부작위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되고 사법재판소의 취소소송 판결에 대한 불이행도 부작위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EU의 기관들과 직원들이 직무수행 중 회원국 또는 개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소송은 국내법원이 아닌 사법재판소가 관할한다. 실제 가장 빈번하게 제소당하는 기관은 EU이사회와 EU 집행위원회이고, 회원국의 책임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국내법원에 소구하여 받은 판결 등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EU의 공동통상정책과 대외 협정

공동통상정책은 EU와 제3국 사이의 통상에 관련한 정책으로 상품과 서비스 등 교역을 포함한 대외 거래가 중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채택된 WTO 체제나 제3국과 체결하는 FTA를 둘러싼 통상문제들에 관한 정책이다. 회원국들은 EU의 공동이익보다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별적인 결정을

<sup>2</sup> 지침은 원래 회원국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재판소는 국가가 전환절차 없이 개인에 대하여 원용하는 수직적 역원용 및 개인 간의 수평적 역원용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C-91/92 Dori (1994) 등

<sup>3</sup> 의무이행강제소송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불이행 관련 절차 및 결정의 약 75%는 지침(directives)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sup>4</sup> C-366/88, France v Commission (1990), C-325/91, France v Commission (1993), C-395/95, Geotronics (1997), 316/82, Kohler (1984), 165/87, Commission v Council (1988)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동통상정책 분야는 EU법상 권한분배에 있어 기본적으로는 EU의 배타적 권한에 속할 수밖에 없다.

리스본 조약 이전에 사법재판소는 Opinion 1/75와 Opinion 1/94에서 공동통상정책이 속성상 원칙적으로 EU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고, 공유적 권한에 속하는 일부 역영은 권한분배에 따라 회원국들도 공동으로 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순한 상품교역 형태 이외에 서비스와 지식소유권 등 다양한 형태의 교역에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EU의 배타적 권한범위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결국 종전의 일부 개정에서 리스본 조약은 유럽연합조약 제3조 제1항에서 공동통상정책을 EU의 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되 기능조약 제207조에서 공동통상정책의 범위를 상품 및 서비스, 지식소유권 이외에도 해외직접투자<sup>5</sup>까지 확대하는 한편, 문화 및 시청각 서비스와 사회, 교육, 건강 서비스도 (경우에 따라) 그 범위에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공동통상정책에 포함되는 FTA 등 제3국과의 대외협정에는, EU의 배타적인 권한 사항 이외에 회원국과의 공유적 권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비록 법률상 회원국들이 EU와 공동으로 체결할 필요는 없지만 관행적,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국내 기준 등의 방법으로 EU와 공동으로 체결되는 혼합협정(Mixed agreement)의 형태가 매우 많다.<sup>6</sup> 따라서 협정 내용 중 어떤 부분이 EU 또는 회원국과 체결되었는지 불분명하다는 문제와 공유적 권한에 속하는 내용에 대한 선결적 의견조회 의무 문제 및 혼합협정 내용을 위반한 회원국에 대한 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여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FTA 등 대외 협정의 구체적 효력

FTA를 포함하여 대외 협정은 EU와 회원국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리스본 기능조약 제216조 제2항). 우선 대외 협정은 EU 법질서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우선적 효력이 있다. 그러나 사법재판소는 직접적 효력에 관하여 협정규정의 문언 자체와 협정의 목적 및 본질에 비추어 명백하고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직접적인 효력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sup>7</sup>

한편 대외 협정은 EU 설립조약보다는 하위에 있지만 EU의 2차적 규범보다는 상위에 있으므로, 대외 협정 중 직접효력 규정에 반하는 EU의 2차적 규범은 효력이 없다. 더욱이 사법재판소는 GATT 1947과 WTO 협정과 같이 직접효가 인정되지 않는 규정도 EU의 2차 규범의 해석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국내법원이 국내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직접효 없는 협정 규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sup>8</sup>

한-EU FTA의 규정들도 위와 같은 기준으로 직접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EU의 2차 규범보다 우위의 지위에서 적용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최근의 상품 원산지에 관한 브리타(Brita) 케이스<sup>9</sup>와 같이 비법률적인 미묘한 문제까지도 고려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한-EU FTA과 같은 혼합협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과연 어떤 부분이 공유적 권한 범위인지 아니면 EU 또는 회원국의 배타적 권한 범위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사법재판소는 상호 긴밀한 협조의무와 통일적인 해석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공유적 권한 범

위의 문제에 대하여 사법재판소만이 그 해석권한을 갖는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회원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국 분쟁은 FTA 분쟁 관련 규정들과 위에서 본 여러 일반적 해결 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용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sup>5</sup>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이미 체결하였거나 체결 중인 양자 간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과 사이에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현재 그에 대한 잠정조치규칙 등을 해결 중이다.

<sup>6</sup> 한-EU FTA도 공유 권한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형사 규정 등의 이유로 혼합조약의 형태로 체결되었다. 이러한 혼합협정에 대하여 리스본 조약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sup>7</sup> 대표적으로 C-416/96 El-Yassini (1999), C-213/03 Syndicat professionnel coordination des pêcheurs de l'étang de Berre et de la région (2004)

<sup>8</sup> C-428/08 Monsanto (2010), C-53/96 Hermès [1998] 등

<sup>9</sup> C-386/08 Firma Brita GmbH (2010, 2. 25), 1967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정치적 근거를 들어 원산지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부정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판이 있다.





# EU의 정체성을 위한 언어교육정책

## Language Education Policies for Strengthening EU's Identity

The EU is currently made up of 27 countries and has a population of 450 million. It has succeeded in constructing a common market and a common currency (the euro) yet they still have more to do in forging a common value. In order to achievethis, the EU is carrying out various policies in educating its diverse culture and languages to Europeans. For example, its language education policies are based on multilingualism with a goal of creating a society where members can communicate and understand each other in many different languages without difficulties. Through these policies it expects to strengthen its integration process while respecting members' diverse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

현재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회원국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상호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이며, 다양성에 대한 관용을 일깨워 민주적 유럽시민으로서 자유로이 서로 왕래하고, 일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sup>1</sup>. EU는 이를 촉진하고자 ‘문화, 교육, 청소년 영역’에서 다중언어주의(plurilinguism)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의 언어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들은 주로 EU를 대표하는 집행위원회와 EU의 협력기구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공조 하에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평의회는 EU가 처한 특수한 상황인 다언어·다문화 상황에서 비롯된 여러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 다양성 내에서의 단일성

EU는 ‘단일유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난 50여 년간 로마 조약부터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이르기까지 EU 체계의 기반을 이루는 정치적 기틀을 마련해왔다. 회원국들은 자국 주권의 일부를 공동체에 이양하였고, 초국가적 기구와 정부 간 기구의 협의 및 조율을 통해 각 회원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공동정

책들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

EU는 1957년 로마 조약을 체결하면서 공동시장을 창설하고 공동의 경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회원국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생활수준의 향상, 나아가 회원국 간의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표는 상품,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기업 간의 공평한 경쟁 기회 그리고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구현되었다. 게다가 경제 통합 결과로 1993년 단일시장이 완성되었고, 1999년부터 유로화까지 통용되면서 경제공동체의 꿈이 현실화되었으며, 정치 공동체의 밑그림도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그러나 경제 영역 중심의 유럽 통합은 성공적으로 ‘단일시장’을 형성할 수 있게 했지만, 진정한 ‘단일유럽’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유럽시민들 간의 동질성 및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특히 회원국들 간 이념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오해, 자민족중심주의 등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였고, 정치·사회 영역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경제 분야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을 공고히 함으로써 진정한 ‘하나의 유럽’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국들 간의 상호 이해, 소통, 협력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공동의 가치와 문화를 창출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따라서 EU는 ‘단일성 내에서의 다양성’이라는 모토 아래 유럽 차원의 소속감이나 정체성 형성을 위해 유럽의 언어·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존하기 위한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의 언어교육정책을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 이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소속감 혹은 정체성이 반드시 ‘이타성’과 ‘다름’ 혹은 ‘다양성’을 거부함으로써 배타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언어의 존재 방식을 정의하는 가치나 원칙을 공유하는 것으로 유럽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 능력과 가치로서의 다중언어주의

EU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갖춘 민주 시민을 양성하고자 공동의 언어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별 언어 사용자’의 다양한 언어목록 및 그 사용능력의 발달을 장려하는 다중언어주의<sup>2</sup>를 그 핵심 가치이자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다중언어주의는 능력으로서의 다중언어주의와 가치로서의 다중언어주의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능력으로서의 다중언어주의란, 하나 이상의 언어를 학습하고 사용하는 모든 화자가 지닌 내적능력이다. 사용 목표에 따라 비중을 달리하면서 여러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다중언어능력을 뜻한다. 이 능력은 화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목록(linguistic repertory) 내에서 언어사용 상황에 따라 발휘되는 것으로, 여러 언어와 여러 문화의 경험을 상이한 수준

<sup>2</sup> 현재 EU는 언어위상과 관련된 영역에서 회원국의 다양한 언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언어주의(multilintuism)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언어교육 정책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다중언어주의(plurilinguism)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다언어주의란 ‘언어의 존재’에 초점이 맞춰진 개념으로서 일정한 공간 안에 여러 언어가 공존하고 병용되는 현상 및 상태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는 해당 공동체 내에서의 언어의 위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언어 간 격차와 이질성으로 인해 무시되거나 차별되는 것을 전략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언어에 따른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반면에 다중언어주의는 ‘개별 언어 사용자’에 초점이 맞춰진 개념으로 이들이 지닌 능력이자 내적가치인 다양한 언어목록을 의사소통 시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양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으로 지닌 화자가 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문화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이다.

가치로서의 다중언어주의란, 언어적 관용을 정당화하는 교육적 가치, 즉 언어적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을 뜻한다. 비록 자신 혹은 타인이 사용한 다양한 언어가 모두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개인적인 의사소통 언어, 직업상의 언어, 공식어, 소속어 등-다중언어적 가치를 수용하고 인식할 줄 아는 화자는 모든 언어를 존중하고 각 언어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EU가 다중언어주의를 핵심 원리로 하는 공동 언어교육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회원국이 자신들의 교육제도 내에서 단일한 언어 교육 체계, 혹은 동일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중언어주의는 개념이자 가치로서, 하나의 형태가 아닌 다원적인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다중언어주의는 각 국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국가적 혹은 국제적인 필요에 따라 각국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구현된다. 다만, 다중언어교육 형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학습자들이 다양한 수준으로 여러 언어를 숙련하고 그것을 구사하는 능력, 의사소통 시 활용 가능한 여러 언어들로부터 동원되는 모든 지식과 자원을 사용하는 능력, 그리고 개인 언어목록상의 모든 언어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존중하는 능력의 습득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 다중언어·다중문화 교육으로 유럽 민주시민 양성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중언어주의를 핵심가치이자 원리로 하는 EU의 공동 언어교육 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다중언어·다중문화 능력을 지닌 유럽 민주시민 양성이다. 유럽시민 개개인의 다중언어·다중문화 습득은 단순히 같은 사회 내에서 언어·문화적 공존 및 병용을 용인하는 것을 넘어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각각의 언어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유럽 내 활발한 상호교류에 매우 중요하다.

<sup>1</sup> 마스트리히트 조약 18조에서는 유럽 내 어디서나 이주하고, 일하고,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제1의 유럽시민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중언어·다중문화 교육은 가능한 한 많은 언어를 동시에 가르치거나 여러 언어들 간의 비교하는 교육이 아닌, 실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다중언어능력과 상호문화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 ①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다중언어교육

다중언어교육은 화자 즉, 언어 사용자가 평생에 걸쳐 습득하는 언어에 큰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다중언어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학교 안과 밖에서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다중언어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원어민처럼 해당 원어를 구사할 필요는 없다. 단지, 다중언어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다양한 언어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의사소통 시 각국 언어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면 된다. 또한 자신의 언어목록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신이 갖고 있는 언어목록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고 발달시킬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다중언어교육은 소수민의 법적 보호, 유럽의 다양한 언어 유산 보존, 개인의 언어 능력 발달, 그리고 유럽의 민주시민이라는 소속감 형성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닌 개념 이상의 가치로 확장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중언어교육은 EU 교육정책의 핵심 원칙인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다중언어 환경에서 상호이해를 위한 다중문화교육

일반적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학교 교육을 거치는 동안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언어를 습득한다. 언어 습득은 문화 습득과 타인과 함께 생활하는 능력의 습득을 포함하므로, 언어는 사회 그룹 혹은 문화 그룹에서 소속감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요소다. 또한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언어 습득을 통한 언어목록의 확장은 타 문화권, 나아가 문화적 환경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발달시키고, 문화적 인식의 확장은 개인적, 직업적 활동의 범위를 다른 언어·문화 공동체

로까지 확장시켜준다.

유럽에서는 상호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개인적, 직업적, 교육적인 이유로 인해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서 타인과 함께 살거나, 공부하거나, 일하면서 다른 국가나 공동체의 가치와 행동양식을 이해해야만 하는 상황이 빈번해졌다. 이에 자연스럽게 타 문화를 지닌 사람과 교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인식하게 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능력도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문화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은 상이한 그룹 간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능력은 여행 가이드, 교사, 외교관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상호문화 중개자(intercultural mediator)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상호문화 이해 능력 및 상호문화 중개능력은 언어교육의 내적인 목표들 가운데 하나다. 이러한 능력은 다중언어능력을 지닌 개인들이 현대 유럽의 다언어적 환경에서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해준다. 결국, 다중문화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자의 상호문화 이해 능력과 상호문화 중개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있다.

### 단일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언어문화교육

유럽 국가들이 처한 현 상황에서는 다언어·다문화 환경에서 다양한 언어습득을 통한 다중언어·다중문화 습득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능력의 습득은 개인 차원에서는 교육, 직업, 여행, 여가 등의 영역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기회의 확대로 이어지고, 기업 차원에서는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해냄으로써 유럽시장, 나아가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공동체 차원에서는 활발한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및 존중을 바탕으로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비관용과 같은 요소들을 불식하도록 함으로써 유럽 민주시민 양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능력은 EU가 언어·문화적 다양성, 전통, 공동의 문화

유산에 존중함으로써 자유, 연대, 다양성 등의 인류 가치를 실현하는 단일 공동체로 발전하는 데 필수다.

이에 따라 EU는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유·초등기부터 모국어 이외에 적어도 두 개의 외국어 능력 함양할 것을 촉구하는 ‘모국어+2’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언어·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유럽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2001 유럽 언어의 해’, ‘상호문화적 대화의 해’(2008) 등을 선포하였고, 언어·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평생에 걸친 언어습득을 장려하기 위한 ‘언어 2010’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평의회를 중심으로 언어 교수·학습을 위한 참조도구의 개발 등 유럽 고유의 언어·문화적 다양성이 공동체 통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EU 언어교육 정책의 집약체인『유럽공동참조기준』

다중언어·다중문화교육은 유럽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다중언어주의 원칙하에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다양한 언어사용능력의 습득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즉, 타 언어와 타 문화를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회원국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고, 창의력과 인식의 체계를 넓혀주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유럽 차원의 소속감이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EU의 언어교육 정책의 기본원리가 집약된 것이 2001년 발간된 『언어 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공동참조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 이하 CEFR)』이다. CEFR은 유럽의 가치를 보호하고 회원국들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단일 유럽을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 유럽평의회를 중심으로 1991년부터 시작된 언어교육 프로젝트 결과물이다. 이것은 기존의 언어교육의 목표와 교수·학습·평가 방법에 대해 재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다중언어주의를 기반으로 회원국의 모든 언어의 교수·학습·평가를 위한 공통 지침을 마련하여 회원국 간 상이한 교육 체계

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언어학습 인증 및 평가의 제약을 완화하고 유럽의 외국어 교육 분야에 투명성과 일관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각국의 모든 실무자와 전문가들 간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여 다양한 경험을 교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상호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현재 유럽 각 회원국의 언어교육 체계 조정, 언어 자격증의 상호 인증, 유럽시민 간 교류 활성화와 유럽시민의 다중언어·다중문화 능력 함양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 및 상호문화적 대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핵심 도구가 되고 있다.

EU는 6개국의 경제 협력을 목표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제 EU 공동체는 현재 유럽 연방으로 향하는 미래를 꿈꾸며 유럽헌법 제정이나, 단일 대통령직 마련 등 EU의 외형적인 확대 및 성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다양성 안에서의 단일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않고는 유럽 내적인 차원에서 유럽시민 간 ‘하나’라는 소속감 내지는 정체성 형성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인증, 문화, 그리고 언어로 구성된 4억 5,000만 유럽시민들이 같은 미래를 꿈꾸며 함께 일하고, 생활하고, 서로 관계 맺으며 진정한 단일 유럽을 완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언어·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나아가 서로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함양이 필수다. 유럽시민들은 다양한 언어를 학습하고 그것을 구사하는 능력을 습득하고 발달시킴으로써 타인에게, 타 문화에, 그리고 자신들의 이웃에게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호 이해와 관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유럽시민이 언어사용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EU가 공동의 언어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회원국 간 교류를 촉진하고, 함께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자유와 시민권을 누리며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핵심 도구가 되고 있다.

최희재 서울대학교 외국어교육학과 강사





# 이탈리아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

## Another Economic Problem in Italy: Uneven Regional Development

The contagion of the eurozone fiscal crisis has reached Italy and its new government is having difficulties in coming up with solutions. Its austerity measures are currently being opposed by an opposition party which has its political base in the Southern part of Italy. This conflict has its roots in Italy's uneven regional development and it is posing as a threat while the government needs to achieve a sound fiscal management. A discussion paper named "Internal geography and external trade: regional disparities in Italy, 1861-2011" was released in November 2011 from University of Oxford and this paper provides a historical background on this issue. This paper explores the interactions between external trade and regional disparities in the Italian economy since unification and it argues that the advantage of the North was initially based on natural advantage. The government will have to ease this inequality which has continued for a long period of time in order to revitalize its economy and also to gain opposition party's support for its austerity measures.

유럽의 재정위기에 유로지역 3위의 경제대국인 이탈리아까지 흔들리고 있다. 이탈리아 국제금리가 위험 수준인 7%를 넘자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이탈리아는 유로지역 붕괴의 뇌관"<sup>1</sup>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이번 재정위기 돌파의 임무를 맡으며 새로 부임한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 12월 4일 240억 유로의 재정긴축안을 발표하면서 울먹이는 보건부장관을 대신해 "사크리피치오(sacrificio, 희생)"라고 말을 전했다.

몬티 총리의 재정긴축안에 남부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야당은 반대를 표명하였다. 이탈리아의 고질적인 남북 격차가 이탈리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탈리아 남부지역의 1인당 GDP는 북부지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지역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이 발표한 <내부 지리와 외부 수출: 이탈리아의 지역격차 1861-2001> 보고서에서는 이탈리아 남부격차를 지리적 이점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즉, 이탈리아 북부지역의 경제발전은 자연 자원의 지리적 이점으로 인한 산업의 집중적인 고성장과 수출 때문이며, 이탈리아 통일 이후 이러한 지리적 편차와 시간적 집중이 계속 누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북부는 예전부터 수자원이 풍부했다. 수자원은 농업 생산의 필수 요소여서 당연히 이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었다. 집중된 노동력은 이후 산업사회로 진입함에 있어 큰 이점이 되었으며, 실제로 북부지역의 경제성장은 산업화 초기부터 남부지역을 앞질렀다. 산업화 초기에는 섬유산업이 이탈리아 북부의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며, 1920년을 기점으로 엔지니어링으로 전환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농업에서 초기 산업혁명, 섬유산업, 기술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점차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북부의 발전 속도가 항상 남부지역을 앞질렀다는 것이다. 또한 북부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각 산업의 발전 속도와 전환이 느려졌다. 모든 산업의 발전 속도는 북부를 기준으로 한 거리와 비례하였다.

이처럼 자연자원, 자본, 노동력이 이탈리아 북부지역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산업고도화의 모든 과정에서 북부가 남부를 앞지를 수 있었다. 이것은 국내 산업의 지리적 격차뿐만 아니라 대외 수출구조의 격차도 야기했다. 대외 자본 역시 이탈리아 북부지역에 집중되었으며, 남부지역은 그러한 북부지역이 자체 조달하지 못하는 농업이나 이전 단계의 생산품을 생산하는 데 특화하였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국내에서도 일종의 비교우위가 생겨난 것이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1960년을 정점으로 이탈리아 남북의 격차가 다소 안정되었다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1960년대 이탈리아 경제가 수출로 인해 고성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북의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는 것이다. 1960년대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50년대에 비해 두 배가량 늘어났으며, 1970년대 후반에 다시 두 배로 증가할 정도로 이탈리아 경제는 급성장하였다. 수출주도형으로 경제구조가 바뀌자 외국 시장에 가까운 여러 지역으로 공장과 자본이 분산되었으며, 이탈리아가 새롭게 시행한 관세, 도로건설 등 인프라 사업 등이 남북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일조하였다.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 역시 국내적으로 지역격차가 존재하지만 프랑스는 파리, 리옹뿐만 아니라 프로방스, 알프스, 론 등 지역마다 산업구조가 특색이 있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각 산업이 발전했던 시기에 해당 지역도 발전했다. 즉, 국가 내 격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한 곳에 집중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탈리아는 현재까지도 서북부지역이 계속해서 모든 부와 자원을 집중적으로 독차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산업구조의 불균형 문제가 삶의 질의 차원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업률 등은 말할 것도 없이 다른 모든 사회시설과 정책, 심지어 정치까지도 북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다른 국가들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미개발지역에 자원을 배분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이탈리아 전체 수출에서 남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다. 또한 외국 자본과 시장에 대한 경험이 누적되지 않다보니 이탈리아 남부지역의 제도와 사회경제적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산업화가 늦어지고 경제성장이 뒤쳐져 제도적 준비가 미흡한데, 이것이 다시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남부 이탈리아의 현실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현재의 유럽 경제위기 속에서 이탈리아 남부는 더욱 성장하기 힘든 구조가 될 것이다. 이탈리아는 재정긴축, 경제성장은 물론 남북격차 해소라는 이중, 삼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자료:University of Oxford, (2011, 11.),Internal Geography and External Trade: Regional Disparities in Italy, 1861-2011)

정민경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sup>1</sup> Euro Won't Survive If Italian Government Defaults (2011, 11, 28). Bloomberg.



## 제13회 EU Core-Circle 세미나 The 13<sup>th</sup> EU Core-Circle Seminar

Dr. Deuk-Kap Kim from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gave a lecture on "Eurozone break up: Possible scenarios" on the 25<sup>th</sup> of October. Participants discussed about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current fiscal crisis and possibilities of the eurozone break up and its effects on the global economy.

Dr. Kim presented a thorough analysis of eurozone's economic performance during the past decade and the structural dilemma it faces now. He also presented future scenarios based on a number of possible events such as a Greek default and Italy receiving a rescue package. Participants agreed that the eurozon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of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s need to solve their internal imbalance problems and the fiscal crisis in order to protect its existence.

지난 10월 25일 연세-SERI EU센터는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의 발표로 제13회 EU Core-Circle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유로화붕괴 시나리오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다방면에서 드러나는 유럽 발 재정위기 현상에 대해 토론하고, 유로화 붕괴의 가능성과 예상 시나리오,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나눴다.

발표자인 김득갑 연구전문위원은 지난 10년간 유로화가 이룬 경제적 성과와 유로화 자체의 구조적 딜레마를 분석하여 발표하였으며, 그리스 디폴트와 이탈리아 구제금융 신청 등 여러 변수에 입각한 유로화 붕괴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각 시나리오의 가능성과 경제적 파장 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유로지역의 역내 불균형 문제와 재정수지 악화 등 현재 유로지역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유로화가 여전히 EU의 핵심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유로화는 전 세계 기축통화의 하나로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EU가 더욱 강력한 대응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 제27, 28회 EU 특별강연 The 27<sup>th</sup> and 28<sup>th</sup> EU Special Lecture

The Yonsei-SERI EU Centre held its 27<sup>th</sup> and 28<sup>th</sup> special lectures on the 11<sup>th</sup> of November. The 27<sup>th</sup> lecture started at 11am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of Yonsei University's New Millenium Building. Dr. Wolfgang Pape, a research fellow of KIEP, gave an overview of the fiscal crisis and students raised questions on possible measures for overcoming the crisis. Following this lecture, the 28<sup>th</sup> special lecture started at 2pm at the Yonsei University Law School Building. Mr. Tim Yeo, Member of the House of Commons, and Baroness Worthington, Member of the House of Lords, from the United Kingdom delivered lectures on "Emissions Trading: Lessons Learned from Europe and Recommendations to Countries Developing New Schemes." In these lectures, students were given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environment regulations in the EU.

연세-SERI EU센터는 지난 11월 11일 EU 특별강연을 2회 연달아 개최하였다. 11일 오전 11시부터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710호에서 前EU집행위원회의 볼프강 파페 박사가 유럽 재정위기에 관한 특별강연을 하였으며, 특별강연에 참석한 학생들은 이번 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EU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오후 2시 30분부터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영국 하원 에너지기후변화위원회의 팀요 위원장과 바로네스 월싱턴 영국 상원의원이 EU 주요 16개 국가의 기후변화 관련 입법상황과 탄소 배출권 거래에 관해 강연을 펼쳤다. 많은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럽의 앞선 환경 관련 입법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 EU Society 1기 모집 The 1<sup>st</sup> EU Society Member Recruitment

The EU Society was officially launched in May, 2011. It is planning to hold weekly seminars on EU related topics and to publish an academic journal named “Yonsei European Studies(YES).” The EU Society is recruiting its first members and Yonsei University students who have interests in the EU and international affairs can apply to join. Those who are willing to participate in EU Centre’s symposiums and seminars will be given priorities.

지난 5월 공식 출범한 EU Society가 1기 회원을 모집한다. EU Society는 매주 정기 세미나를 개최해 EU에 대해 토론하고, 학술지(YONSEI EUROPEAN STUDIES, YES)를 발행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학부생이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EU와 국제문제에 관심이 많고, EU센터에서 진행하는 여러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